

# “고마워요, 척” 삶이라는 이름의 우주



홍경한의  
시시일각

인간은 오래전부터 별을 죽음 이후의 자리로 사유해 왔다. 단테의 ‘신곡’에서 별은 영혼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질서의 좌표였고, 고흐 역시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별에 가는 것은 아닐까 질문하며 삶 너머의 장소로 별을 떠올리곤 했다. 이 외에도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비롯해, 구스타프 말러, 호안 미로 등 많은 예술가들이 별을 삶과 죽음의 기호로 다뤘다.

나 또한 유사한 상상을 한 적이 있다. 감수성 풍부하던 유년 시절, 나는 검은 벨벳 위에 은빛 모래알을 흘려놓은 듯 반짝이던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이름 모를 누군가의 넋이라 믿었다. 그래서였을까, 그 시절의 내게 밤하늘은 거대한 장례식장이었다.

최근 개봉한 마이크 플래너건 감독의 영화 ‘척의 일생’(The Life of Chuck, 2024)에서도 별은 주요 모티프다. 교사 마티가 그리워하던 펠리샤의 손을 잡고 맞이하는 세상의 끝에서도, 어린 척의 배경으로도 설

정된다.

우리는 보통 삶을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 서사로 이해한다. 하지만 스티븐 킹의 소설집 ‘피가 흐르는 곳에’(2020)에 수록된 동명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척의 일생’은 삶을 기억의 구조로 제시한다. 특이하게도 3막에서 1막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연대 기적 구성이다.

그 중 3막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재난 영화의 풍경과는 다르다. 어느 순간 밤하늘의 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 불을 끄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완전한 암흑으로 뒤덮이는 장면은 그 어떤 물리적 폭발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여기서 사라지는 별들은 주인공 척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기억의 파편들이다. 그가 평생을 살며 품어온 내면의 우주다. 특히 뇌종양으로 인한 척의 죽음은 집단적 멸망이 아닌, 한 개인이라는 고유한 우주가 거행하는 퇴장의 의식이다. 우주는 개인 안에 있고,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세계라는 명제를 사유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실제로 영화는 월트 휘트먼의 시 ‘나 자신의 노래(Song of Myself)’에 나오는 ‘나는 내 안에 다수를 포함하고 있다(I contain multitudes)’를 빌려 말한다. 우리 각자

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과 수만 개의 풍경이 사는 거대한 우주가 있다고.

영화는 전반에 걸쳐 “고마워요, 척(Thanks, Chuck)”이라는 표현을 반복한다. 이는 이별의 인사라기 보단 삶에 바치는 헌사에 가깝다. 39년이라는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는 평범한 회계사 척에게 세상이 건네는 이 말은 당신이 존재했기에 이토록 경이로운 세계가 가능했노라는 경의의 표시다.

새해다. 선형적으론 어제의 연속이요, 단지 신으로부터 삶이라는 길을 다시 걷도록 허락받은 것에 불과하다. 밤하늘 역시 어제의 그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죽음의 장례로 읽히진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직은 한 개인의 소중한 기억이 닫히지 않은 채 별들로 가득한 우주를 잠시나마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다. 마티와 펠리샤처럼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더욱 그렇다. 설사 어느 날 갑자기 기억된 순간들이 사라진다 해도 그리 혀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빛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들의 기억 속으로 이동할 뿐이므로.

/미술평론가

## 이제 디지털자산은 ‘눈치게임’이 아니다



기자 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지난달 증시에서 증권사들의 준비성이 확인됐다. 고점을 향해 가는 코스피와 상반되게 증권 업종은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다만 조용히 준비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갈라지고 있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만 선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가의 등락보다, 누가 이미 다음 단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가 분명해 진 시기였다.

증권사들이 찾는 ‘새로운 먹거리’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다. 기존 수익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지에 가깝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에 이어 디지털자산이 거론되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게 디지털자산은 여전히 ‘해볼까 말까’의 영역일까. 적어도 요즘 시장에서 그 질문은 이미 과거형에 가깝다.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증권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 변동이 아니라 제도화다. 법과 규칙이 마련되는 순간, 디지털자산은 ‘하고 싶으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준비된 곳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STO) 법안 통과가 갖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회를 여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진입장벽을 세운다.

이 장벽 앞에서 증권사들의 출발선은 같지 않다. 대형사는 이미 인프라와 인력,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중소형사 대부분은 기준에 노출

됐던 사업에서만 성패가 좌우된다. 자본 여력과 조직 규모의 한계로 신사업 진입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디지털 자산이 본격화될수록 증권사 간 격차는 단순한 성과 차이를 넘어, 사업 구조의 차이로 굳어질 가능성성이 크다.

선발주자의 유리함은 단순히 먼저 뛰어들었다는 데 있지 않다. 제도가 시행되는 순간, 시장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시스템과 통제를 먼저 갖춘 곳은 규칙을 설계하는 쪽에 서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규칙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자산 역시 단기적인 테마라기보다는 어떤 구조로 다음 사이클을 맞이할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증권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눈치를 보느냐, 준비를 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간극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godhe@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1월 7일 (금 11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월 해야 하나 고민. 48년생 정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 6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72년생 먹을 때만 움직이지 말고 머리를 쓰자. 84년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리는 힘들다.



37년생 바쁘게 길을 떠나야 하는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된다. 49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61년생 지혜는 샘솟지 않아도 근면함을. 73년생 무리한 방법의 재투자는 재난초래. 85년생 직원을 뽑을 때 인성은 우선시해보자.



38년생 집들이하는 날. 50년생 준비 없는 동분서주는 이익이 없다. 62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은 것은 아니다. 74년생 내 코가 석 자인데 남의 사정 돌아볼 여지가 없다. 86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39년생 생산성을 이끌어 이득 발생. 51년생 항상심이 없이 보내는 날은 의미가 없다. 63년생 새는 날마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75년생 깨마귀 날자 빨리져도 원망하지 마라. 87년생 돈이 밝은 곳에 있으면 지출만 친진다.



40년생 소통의 방법을 알면 날개를 다는 형국. 52년생 주변을 탓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64년생 일할 타전이 있어 의욕 넘침. 76년생 좋지 못한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88년생 종로에서 빨리 맛고 한강 강가서 분풀이.



41년생 주식 투자는 친구 말보다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53년생 신용을 지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이다. 65년생 추진력이 좋은 장점. 77년생 뒤덮인 안개처럼 앞을 못 보겠다. 89년생 내가 가진 특기로 우월성을 자제해야만.



42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54년생 이웃 간에 시기 질투를 경계. 66년생 대장목 짐에 기둥이 휘었다니 자기 주변부터 살펴라. 78년생 오십 보나 백 보나 도망친 것은 마찬가지. 90년생 가랑비에 웃 젖는 줄 모르고 낭비.



43년생 밤이 지났으니 곧 밝은 새벽이 온다. 55년생 무리수를 두는 투자는 후회를 낳는다. 67년생 가까운 곳으로 여행하여 재충전하는 것도. 79년생 학문의 발전은 없었으나 기술은 최고였다. 91년생 지금이라도 실비보험을 꼭 들어두자.



44년생 돌다리도 두드러듯이. 56년생 재물이 융통되어 급한 불은 끼게 된다. 68년생 목소리를 낮추자. 80년생 지붕 위에 지붕을 세우는 것처럼 부질없다. 92년생 진정으로 기도를 올려보면 힘겨움도 줄어들고 닥쳐온 어려움도 덜게 된다.



45년생 밤과 낮 가리지 않고 새물이 풍족. 57년생 지혜가 밝아진다. 69년생 일찍 귀가 하도록. 81년생 깨마귀는 자라면 아이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학심이. 93년생 개인 복덕의 차이와 운명이 펼쳐지는 발현의 강도가 어제오늘 다르다.



46년생 실패한 가사는 돌아보자 마리. 58년생 구름만 끼고 비는 오지 않지만 힘을 내야. 70년생 사촌이 땅을 사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 82년생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오니 겸손하. 94년생 운세가 흔들리니 재투자는 신중하게.



47년생 결과만족 정도 중요. 59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니 그만큼 환경이 중요. 71년생 넓게 보면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생김. 83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95년생 의무는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니 주장만 하지 말 것.



## 김상회의四季

### 병오년 떠별 신수 ①



오(午)는 자오(子午) 충이요, 묘유(卯酉)와는 형상의 기운이고 사유축(巳酉丑)은 합의 기운이다. 충(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부딪히고 찌르는 기운이라 해서 달갑게 여기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충의 기운이 안 좋은 흐름을 오히려 흔들어 놓기에 세운이나 월운으로 오는 천간지의 작용을 잘 살펴야 한다. 합(合)의 경우 역시 합이라 해서 반드시 길신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니 각자의 사주 구성을 따라서 적용의 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떠별 적용 때에도 월 일 시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라서 통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더 자세한 분석은 연월일시의 상호작용을 살펴야 한다. 십이간지의 첫 번째인 쥐띠는 일단 자중자애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들썩거림이 있는 해우년이 된다. 소띠들의 경우는 말과는 원진이 된다.

원진이란 뭔가 짜증이 나고 만족스럽지 못하여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발생하는 형국이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움을 키워나가는 것 이 지혜가 된다. 호랑이띠들은 말해를 만나 기운이 활발함을 느낀다. 말과는 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자고 일어났을 때 컨기션이 좋음을 느끼는 기분이다. 토끼띠들은 말과는 형상의 기운이 일차적 이므로 돌발적인 일로 피곤할 수 있다. 순리를 따른다는 마음으로 과욕은 금물이다. 용띠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 기어와 같은 흐름이다. 차분히 계획한 대로 성실을 발휘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뱀띠들은 말과 함께 상승 분위기를 즐기는 모양새다. 적토마 뛰니 같은 火기운인 뱀은 뎅달아 힘이 난다. 해묘미(亥卯未), 데자띠 토끼띠 양띠가 놀삼재에 해당되니 경거망동을 삼가고 정리·정돈하는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2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7		4	3	2			
5			3					
	3	5						
7			8					
	5			8				
			7					
	2			9				
			1					
8	2	9		5	6			

3x3 스도쿠

컬러스도쿠

컬러스도쿠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려아이노의 웹드라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div style="